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4년 5월 25일(주일) 제1001호



자녀들이 준비한 천국잔치

65세 이상 부모초청 전도집회 ... 초청자 426명 중 344명 "예수님 믿겠다"

자녀들이 준비한 천국잔치였다. 아들딸 손에 붙들려 생전 처음 교회에 온 65세 이상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집회에 초청된 부모 426명 중 344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서약했다. 결산율이 무려 81%나 됐다. 예수님 만난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처럼 기뻐했다. 교회행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오랫동안 교회 가자고 부모를 설득하던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짐했다. 예수님 대하듯 부모님을 섬기겠다고, 매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4-5면으로 이어짐)

사역_ 교도소에서 온 편지

» 2면

▷“고맙습니다,
온누리신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캠퍼스_ 우리교회를 소개합니다

» 6면

▷양지 온누리교회
여성들이 성장하고 있다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강력한 파워'



차세대_ 교사데이

» 7면

▷선생님께 보내
는 편지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복지_ 군포시청소년쉼터 하나로

» 8면

▷신가족의 탄생
'오 마이 팬'
청소년 중장기보호
및 대안교육 기관



교도소에서 온 편지

고맙습니다, 온누리신문

며칠 전 온누리신문 앞으로 정성들여 쓴 편지 한 장이 왔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수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재소자가 쓴 편지였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교도소에서 온누리신문 앞으로 보낸 온 편지는 오십여 통이다.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온누리신문의 사명을 되새긴다. 정성들여 보내주신 편지글을 정리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회개와 눈물 그리고 희망과 용기”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죄를 짓고 수원 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〇〇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 20일에 수감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죄인에게 편지 모를 갈증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잘되지 않으니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속에서 구하려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입으로는 ‘주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놓고 행동은 저의 생각과 뜻대로 교만함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죄인이 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이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된 계기가 온누리신문이었습니다.

교도관님이 배포해 주신 신문의 내용을 보며 주님의 품에서 떠나 살아온 지난 시절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서 회개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내와 연단, 결국 소망주시는 주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수원구치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온누리신문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감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간 잠시 멀어졌던 주님께 다시 가까이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온누리신문을 이곳 여주에서 볼 수 없어 아쉬움과 절박함이 컸습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매주 온누리신문을 받아 보고 싶



어서입니다. 여주교도소에서 1월까지 교육받고 또 어딘가로 이동되어질 예정인데, 그곳에서도 남은 5년여의 수감생활 동안에 저에게 안내자가 되어주고 내밀하게 저의 상황을 감찰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온누리신문이 있다면, 그 5년이 고난 중에 인내를, 그 인내를 통한 연단을 결국 소망주시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기에 결코 힘들지 않을 것이기에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수원에서 안양을 거쳐 순천교도소에서 1년 만에 온누리신문을 받아보았습니다. 너무 기뻐 죽을

지경입니다. 수원에서 매주 도우미가 각방에 넣어 주던 온누리신문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저는 우연히 하용조 목사님의 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제 눈을 밝게 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죄인입니다. 근 1년 만

에 받아든 온누리신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경이로운 선물입니다. 제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입게끔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주 온누리신문을 받아보고 싶어 서신 올립니다.

재소자 섬기는 ‘새사람사역팀’

온누리교회에는 재소자들을 섬기는 새사람사역팀이 있다. 새사람사역팀은 전국 47개 교도소 중에서 여주교도소, 안양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청주교도소, 천안외국인교도소 등 11개 교도소를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교도소 10여 곳 이상을 담당하는 단체는 온누리교회밖에 없다. 새사람사역팀은 재소자들을 예배와 인성교육, 큐티와 일대일 양육, 중보기도, 찬양 등으로 섬기고 있다.



사역칼럼

남정진 장로(새사람사역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어린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15척 담장 철창 문이 열렸다. ‘철커덩’ 하고 닫히는 철창을 여러 개 지나다 보면 죄수복을 입은 수감자들을 만나게 된다. 얼굴을 마주치면 쑥스러워 한다. 순수하고 온화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재소자들이 예배당에 미리 와서 찬양을 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성가대와 찬양인도자의 얼굴이 천사 같다. 시간 맞춰 줄을 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진지해 보인다. 휠체어를 타고 오기도 한다.

대표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굳은 표정이 퍼지기도 한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사람사역팀에서 준비해간 음식을 받아 방으로 돌아간다. 고맙다는 인사도 곧잘 건넨다.

매주 여러 교회에서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온다. 조금씩 다르지만 위로의 말씀, 힘내라는 말씀, 예수 잘 믿고 새사람

되라는 말씀을 전한다. 재소자들은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후회를 하기도 한다.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어느 날 극동방송에서 여주소망교도소(아까페 민영교도소)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효진 장로가 출연한 방송을 들은 적이 있다.

사형수에게 목에 밧줄을 대는 순간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고 천사 같은 얼굴을 보이는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몸부림치며 배설물을 쏟아낸다는 이야기였다. 우리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재소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만이 재소자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사람사역팀은 갇힌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돕고 있다. 서울, 경기, 충청도 알대 11개 교도소와 소년원을 섬기고 있다. 예배와 일대일, QT, 구역장 교육, 인성교육, 수련회 지원, 신앙서적, 물품과 음식 후원 등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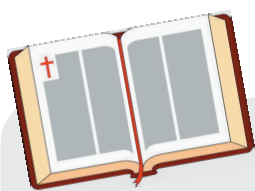
세상은 철창 안이 끝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사역을 하

면서 철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준비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믿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주님만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 섬기러 갈 때마다 죄인임을 고백한다. 들리지 않는 죄인임을 말이다.

주님은 온누리교회에게 낮고 천한 곳을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온누리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 며칠 전 출소한 재소자 한분이 온누리교회 새사람사역팀과 함께 섬기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자신이 교도소에 있을 때 경험한 새사람사역팀의 헌신을 잊지 못해서 자신도 섬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든 섬기겠다고 했다. 든든한 동역자를 만나니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평일에 직접 교도소를 방문해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오늘도 달려간다. 함께 섬기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문의: 이운대 팀장(010-8535-814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눅 10:25~37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없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는 인간의 본분을 잘 설명해줍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 주신 시간을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지식을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이웃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돼 있느냐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물도 많았습니다.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사회는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25절).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돼 있느냐?”(26절).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 주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27절).

율법학자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신 6:5).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 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민교 육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모두 가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28절).

삶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사색, 철학, 관념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율법학자는 자기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고도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뽐내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원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 억눌리고 상처받고, 버림받은 수많은 영혼들 가까이 계십니다. 그들 가까이에서 돕고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철학적 사명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으로 정의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이 영생을 깨닫게 해줍니다.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지나치게 반성을 많이 하면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에 걸립니다. 어떤 의사들은 이웃을 섬기는 일이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인생을 못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면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율법학자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29절).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시키려는 율법학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는 지금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의도입니다. 율법학자의 주장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 이웃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누가 제 이웃입니까?’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교묘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합리화와 변명이 숨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피해가려는 교묘함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할만한 이웃,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

율법학자들은 명백한 진리를 피해가려고 합니다. 누가 이웃인지 몰라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의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사랑할 만한 이웃이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반도는 수많은 외부 민족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외세침략도 많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만큼 외부의 침략이 많았던 지역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사이에 놓인 땅’이라고 합니다.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아래의 애굽 문명의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쪽이 강해지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가 강해지면 위로 올라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긴장 속에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동족은 이웃으로 생각하고, 이방 민족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밖의 민족들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사랑할만한 이웃이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웃

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누가 우리 이웃이냐’고 질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율법학자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위가 많아 강도나 도둑이 도망가거나 숨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피해갔습니다.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또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그냥 지나간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이유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거나 만지면 2주 동안 직무정지를 당하는 율법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유대인과 원수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보살피 주었습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주인에게 이를 치 생활비를 주면서 돈이 부족하면 더 내겠다고 했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을 잘 보살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 율법학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36절).

예수님의 질문을 잘 생각해보십시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누가 자신의 이웃이냐고 질문했었습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주어를 바꾸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이웃을 사랑하려면 누가 이웃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이웃인지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이웃이 될 지를 먼저 생각하면 이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부모초청 맞춤형전도집회 '행복드림'

“부모님만큼 귀한 존재는 없어요”

부모님께 영원한 생명, 포기할 수 없는 희망 선물

“우리 딸 손에 붙들려 왔어요”

지난 19일 여기는 서빙고 분당.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이 자녀들의 초청을 받아 생전 처음 교회에 오셨다.

예배당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환해졌다. 스크린 위에 모래가 깔렸다.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박진 아씨 손끝에서 우리 부모님 이야기가 시작됐다. 스크린 위에서 펼쳐진 한 편의 인생을 보신 어르신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탤런트 오미희가 영상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TV에서만 보던 익숙한 얼굴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탤런트 강석우다. 이날 탤런트 강석우는 어르신들을 위해 멋들어진 색소폰 연주를 선보였다.

“사는 게 무엇인지~아픔이 무엇인지~”

예배당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가수 이무송 노사연 부부가 자신들의 히트곡 ‘사는 게 뭘

지’와 ‘만남’을 불렀다. 딱딱하던 분위기가 흥겨워졌다. 어르신들이 어깨춤을 추면서 즐거워하셨다. 코미디언 이흥렬이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토크쇼 순서였다. 가수 이무송 노사연 부부, 아버지학교 김성목 장로 부부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토크쇼에서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나눴다.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나눴다.

“자식들 키우면서 부모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흥렬의 질문에 노사연이 대답했다.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이 보였다. 참석자들의 코끝도 시렸다. 아내 감정을 추스른 그녀가 부모님들에게 진심을 전했다.

“부모님만큼 귀한 존재가 없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들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부모님을 초청한 가족들의 영상편지가 흘러나

왔다. 진심어린 자녀들의 영상편지를 보고 부모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것 같다. 오늘 이곳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애썼는지 느낄 수 있었다. 자녀들의 바람은 모두 같았다.

“엄마,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

간곡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자녀들의 기도가 맺은 열매

이재훈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이 목사는 영원한 생명,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드디어 결단의 시간! 각 테이블 조장들이 부모님에게 메모지가 달려있는 꽃을 선물했다. 메모지를 뜯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단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았다. 자식들의 진심어린 사랑에 화답하고자 했다.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어르신들의 머리에 알록달록한 화관이 씌워졌

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시더니 이제는 활짝 웃으신다.

어르신들을 교회로 초청한다는 게, 초청을 받고 교회로 발걸음 한다는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 그렇게 오신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씌어주신 화관을 쓰셨다. 2층에 있던 자녀들이 꽃다발을 들고 한달음에 내려왔다. 서로를 축복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피날레는 세라핌과 실버합창단이 장식했다. 세대가 하나 되어 천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폭죽이 터지고, 축복기도로 65세 이상 부모 초청 맞춤형전도집회가 마무리 되었다. 천국잔치였다. 바로 이곳이 천국이다.

이날 65세 이상 부모 초청 맞춤형전도집회에 참석한 423명 중 344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결신율이 81%나 됐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와 사랑이 맺은 열매다.

어제(24일)는 맞춤형전도집회 후속 프로그램으로 3대가 함께 소풍을 다녀왔다.

/ 정현주, 박일새 기자

앙케이트

‘맞아맞아 Best 6’

금쪽같은 내 새끼라도 이럴 땐 서운하다

1위: 아프데 병원가라고 말로만 걱정할 때
“같이 가면 안 되겠니?”

2위: 금방 전화한다 해놓고 안할 때
“요즘은 금방이 며~~칠후니?”

3위: 괜찮다는 말만 잘 들을 때
“언제부터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니?”

4위: 요즘은 옛날이랑 다르다고 할 때
“이제 날 가르치려고 드니?”

5위: 필요할 때만 다급하게 찾을 때
“나도 나름 바쁜 사람이야~”

6위: 지 마누라(서방)의 말만 철석같이 믿을 때
“내 말에도 귀 기울이면 안 되겠니?”



김정아 성도가 존경하는 시부모님(심윤보氏, 임원만氏)을 초청, 예수님을 전했다.

“시부모님 마음에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 김정아 성도

가 신앙 생활하는 것을 인정해주셨습니다. 제가 식사 전에 기도를 하고 명절이나 제삿날에 절하지 않는 것도 이해해주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기도를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9년 만에 태어난 손주도 제가 하고픈 대로 말겨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시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소망을 담아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이번 전도집회를 통해 시부모님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부모님의 마음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셨으면 더욱 좋겠고요. 두 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게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전도집회에 두 분을 초청했어요. 제 초대엔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시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 곁에 계시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지 모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제

“소연이랑 김서방, 사랑하고 고맙네”

/ 아버지 주태신氏

우리 착하고 예쁜 딸 소연이 손을 잡고 사위와 같이 왔어요. 교회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귀한 대접을 받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은 학창시절부터 열심히 교회에 다녔어요. 그동안 우리 딸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지 여기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를 교회로 초대해준 딸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한지 몰라요.

사실 교회에서 열리는 행사에 가자고 해서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위가 설득해서 왔어요. 지금은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공연도 보고 설교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과 사위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거든



김소연 성도 가족. 남편의 설득으로 아버지 주태신氏가 전도집회에 왔다.

요. 다시 한번 좋은 자리에 초청해준 온누리 교회에 감사합니다.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우리를 위해 정말 많이 준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오신 다른 부모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딸과 사위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 소연아, 김서방 사랑하고 고맙네.



앙케이트

우리 부모님, 이것이 존경스럽다

웃음이 많으시다.
손주들과 잘 놀아주신다.
사과를 잘 하신다.
기억력이 엄청 좋으시다.
남을 험담할 줄 모르신다.
어렸을 때 스케이트장에 데려가 주셔서 놀아주셨다.
어린 나를 목욕시킬 때,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애쓰셨다.
시어머니(할머니)를 평생 모셨다.
노래를 잘 하셔서, 노래자랑에 나가서 상품도 타오셨다.
본인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셨다.

자녀들의 선서

하나, 예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둘, 나의 자아와 고정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셋, 매일 매일, 부모님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넷,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김 성도는 불교신자인 아버지를 초청했다.
사진은 본인, 아내, 아버지 김윤옥氏 모습.

저희 집안은 불교인데다 아버지가 장손이라 제사도 많습니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당시 아버지는 집에서 혼자 교회에 다니는 저에게 “네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말리지 않겠지만, 가족들에게는 강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모제사도 안 지낼 놈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생전 처음 교회에 오셨어요”

/ 김재경 성도

아버지께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교회에서 66세 이상 부모님 초청 맞춤형도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 교회에서 열리는 부모님 초청 전도집회에 가자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한사코 안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생각해서 마음을 바꾸셨더라고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열린 것 같아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처음 교회에 발걸음 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뜻깊고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해준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야겠어요”

/ 아버지 전영수 氏

사랑하는 딸들의 권유로 오늘 행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면서 딸들이 제가 하나님을 믿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했을 딸들을 생각하니 정말 감사했어요.

딸들의 기도와 믿음에 화답하고자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서명했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날이 언제가 될지 나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제대로 믿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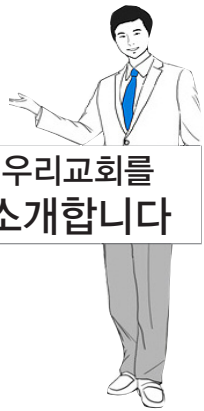
제가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큼니다. 모두 딸들 덕분이지요. 딸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었어요.



딸 전승신 성도와 아버지 전영수氏가 환하게 웃고 있다.

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탈런트 강석우씨의 색소폰연주, 코미디언 이흥렬씨, 가수 노사연 이무송 부부의 입담 덕분에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 설교와 합창공연도 감명 깊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정말 좋아서 교회에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교회를
소개합니다

여성들이 성장하고 있다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강력한 파워!

양지 온누리교회 여성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Acts29비전빌리지로 향했다. 지난 21일 Acts29비전빌리지로 향하는 버스에서 김정순 목사를 만났다. 양지 온누리교회 와이즈마더링 1기를 섬기러 가는 길이었다. 4월말 개강한 양지 와이즈마더링 1기가 10주 동안의 과정을 마치고 종강하는 날이라고 했다.

교회에 도착했다. 하나둘 도착하는 참석자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밝다. 임신부, 아이와 손잡고 온 여성,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와이즈마더링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 속에 감사가 가득했다.

와이즈마더링은 양지 온누리교회가 차세대 어머니 훈련 프로그램으로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여성이 살아야 가정의 삶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믿음으로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가 여성들을 위해 처음 시도한 양육 프로그램은 큐티 세미나였다. 정식 캠퍼스로 승인된 2012년 주미향 권사가 인도하는 큐티 세미나를 열었다. 당시 많은 여성들이 참석해 큐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되새겼다.

2013년에는 수요일전여성예배의 문이 열렸다. 수요일 오전 여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나라와 민족,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해 양지 온누리교회 여성사역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수요일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교회 부근이나 근처 대학교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직접 만든 전도지를 들고 어디든지 나갔다. 더불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YBM금홍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눠 드리고



양지 온누리교회가 여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 21일(수)에는 와이즈마더링 1기가 종강했다.

양로원을 찾아가 식사를 대접했다. 어려운 이웃의 집을 방문해 청소도 해주었다. 교회 부근에 여성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큐티 나눔방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에는 어머니 기도회도 열었다.

아름다운 희생이 원동력

양지 온누리교회 여성들의 믿음이 반석위에 세워지고 있는 데에는 아름다운 희생이 있었다. 지난해 5월 24일 소천한 조혜정 집사의 순교다. 조 집사는 금홍사역팀장을 맡아 독거노인을 섬기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하나님 품에 잠들었다. 이웃 사랑에 앞장섰던 조 집사의 소천 소식에 양지 온누리교회 성

도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난 지금, 2~3명이 하던 YBM금홍사역이 9명으로 늘었다. 전도와 금홍사역의 열매도 맺히고 있다. 조 집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양지 온누리교회 여성들은 큐티세미나, 어머니 훈련프로그램, 기도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양지 온누리교회 여성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근처 가볼만한 곳〉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은 한국교회를 위해 순교한 선교사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정신을 기리고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에 개관했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600여명의 순교자 명단이 헌정되어 있다. 기념관은 1층에 초기 한국교회사를 알 수 있는 역사화, 2층에는 1930년대 이전 개화기의 한국 교회와 사회상을 담은 사진, 3층에는 순교자들의 존영과 유품이 진열되어 있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추계로 235

문의: 031-336-2825



목회칼럼

김영배 목사(양지 온누리교회)

목적이 있는 부르심

교회를 가리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ekklesia)'라고 한다. 이 말은 '밖으로 불러나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밖으로'는 '세상 밖으로'를 뜻한다. 그리고 '부르다'는 '구원예로의 부르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 밖으로 불러 낼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에 나온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 잘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란 도시문명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삶의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한 때, 요셉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요셉의 공로를 알고 있는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배려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심한 노역으로 날마

다 큰 고뇌와 노동의 힘든 나날을 보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차츰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갔다.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도 멈춰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절망과 고난의 때를 보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 주님은 고통의 극에 달해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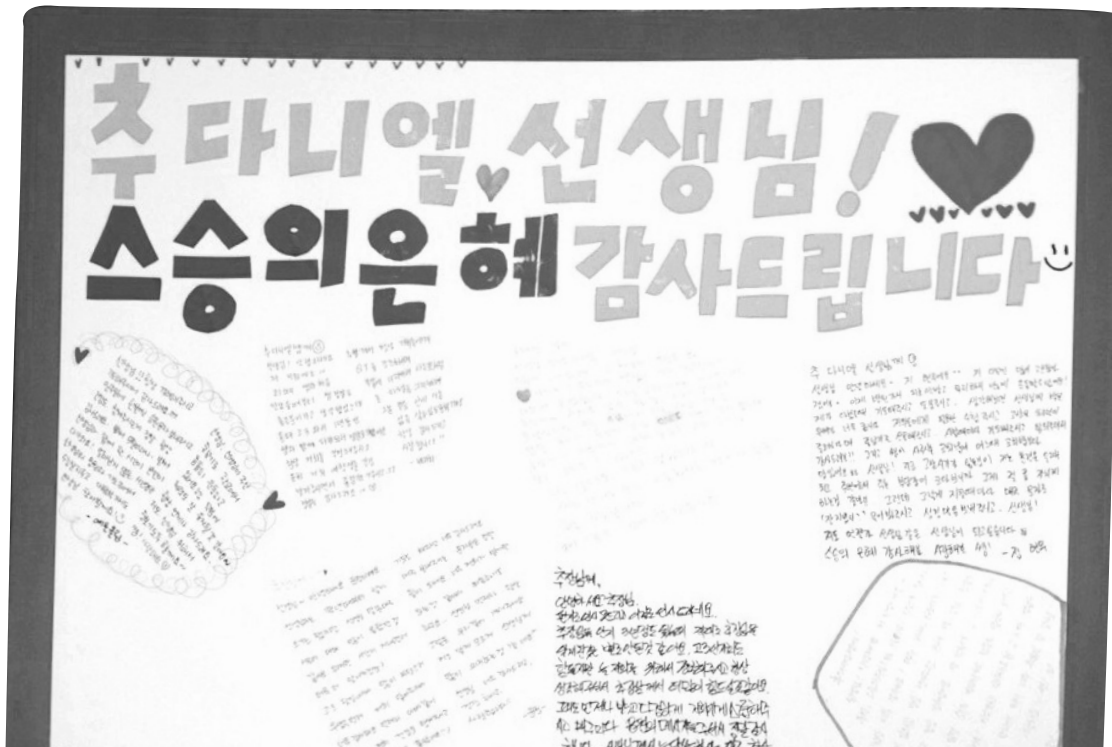
(출2:24-25).

애굽의 강압통치가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다시 자기 백성을 위로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게 하신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세상이란 구조적인 악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닦친 이런 저런 해석되지 않는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믿는 성도의 신음소리에 귀를 막는 분이 아니시고,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회복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악과 인생의 역경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차세대 교사데이

“가슴에 남는 선생님이 되어 주세요”



오늘까지 교사데이 “ 쌤 사랑해요 ”

“사도 바울이 영적 스승으로서 ‘나를 본 받으라’ (고전 11:1)고 했던 것처럼 차세대들이 본받을 수 있는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이재훈 목사가 스승의 날을 맞아 차세대 교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차세대사역본부가 스승의 날을 맞아 그동안 수고해준 차세대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감사쿠폰을 전달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지난 주일(18일), 여기는 서빙고 4층 누리홀. 유년3부가 교사데이 행사를 하고 있다. 이날은 정현석 전도사가 어린 시절 교사를 통해 받은 은혜를 들려줬다.

정 전도사는 어린 시절 장난이 매우 심했다. 선생님들이 애를 먹을 정도였다. 그렇게 장난꾸러기인 자신을 끝까지 챙겨주던 선생님이 있었다고 한다.

“선생님은 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크게 쓰실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안아주셨어요. 그 때 그 따뜻하던

품이 지금도 생생해요.”

자신을 안아주던 선생님의 품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는 정 전도사의 마음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는 것 같았다. 교사데이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그때 그 선생님의 품을 간직하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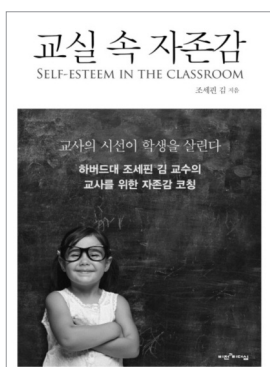
“학생들의 가슴에 남는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25일) 차세대 교사데이는 계속된다. 교사들에게 전달된 감사쿠폰은 서빙고와 양재 커피숍에서 오늘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교사의 시선이 학생을 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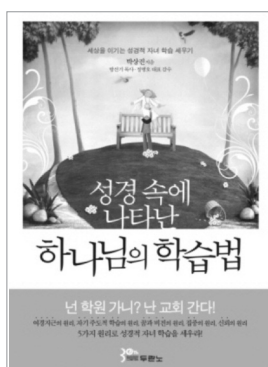


《교실 속 자존감》
조세핀 김 지음
비전과리더십 | 13,000원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자존감’ 편에 출연해 한국에 자존감의 중요성을 알린 하버드대 조세핀 교수의 교실 속 자존감 처방전이다. 8살 때 이민을 가 스스로 ‘아무 희망 없는 아이’라는 생각을 했던 저

자가 4학년 때 한 선생님을 만났다. 저자의 내면에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주는 선생님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저자는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고 조용했던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아이로 변화됐다.

세상을 이기는 학습법



《하나님의 학습법》
박상진 지음
두란노 | 10,000원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이다. 입시 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이 그 도를 넘어섰고, 과도한 사교육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여기에는 기독교 가정도 예외가 아니다. 이 책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 교육법의 원리를 찾아 여경지근(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의 원리, 자기 주도적 학습의 원리, 꿈과 비전의 원리, 집중의 원리, 신뢰의 원리, 5가지 원리로 자녀 학습을 세우게 한다.

자녀를 제자 삼는 부모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김요셉 지음
두란노 | 11,000원

한국 목사와 미국인 선교사가 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저자는 허리띠로 자녀를 다스리는 무서운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단한 번도 말리지 않는 어머니를 보면서 슬픈 유년시절을 보냈다. 미국에 건너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자

신이 한국인 2세와 선교사 자녀 문제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저자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했다. 이 책은 그 과정의 기록이다.



新가족의 탄생 ‘오 마이 팜’

청소년 중장기보호 및 대안교육 기관

군포시청소년쉼터 하나로

여기 새로운 개념의 가족이 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다.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 등으로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하나로’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피한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친부모형제보다 가깝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요. 부모가 이혼했거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친구도 있어요.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로 얼룩진 친구들이 대부분이지요. 특별히 받아줄 곳 없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하나로 쉼터는 위기청소년 중장기보호 및 대안교육 기관이다.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복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들어오면 한 달 동안 적응 기간을 가져요. 그때는 무조건 외출 금지예요. 한 달에 한 번 외박이 허용되요. 단체생활이 어렵기도 하지만 즐거운 일이 더 많아요.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고, 고민이 있을 때 상의할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로 쉼터는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시켜주고 있다. 아픈 부분을 감싸주고, 잘못된 일이 있어도 용납해주는 것이 가족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쉼터가 집이고, 함께 먹고 자는 친구들이 가족이다.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 잘 챙겨줘요.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주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들이 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로 쉼터에서는 대안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10년 넘게 탈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합격률이 무려 95%나 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검정고시를 준비해요. 학교랑은 다르게 재미있게 공부할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에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복지, 교육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수 있어요. 기본교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댄스, 체육, 도예 같은 특성과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하나로 쉼터는 2012년에 경기도 교육청 장기위탁 대안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때부터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로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 교과와 더불어 다양한 대안 교과와 진로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다. 학적이 있는 학생들은 원래 다니던 학교이름으로 졸업을 인정해준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었어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하나로꿈학교 덕분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체험학습 위주의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하나로 쉼터는 ‘따뜻한 쉼, 미래를 위한 꿈, 내일을 준비하는 배움’을 비전으로 2002년 11월 20일 개원했다. 중장기 청소년 쉼터, 검정고시 대안교육(고입, 고졸, 수능반), 대안교육 장기위탁사업 등을 하고 있다. 입소부터 퇴소까지 자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전문화된 상담, 복지, 교육서비스가 자랑이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찾아오는 길

1~4호선 금정역 7번 출구(직진방향 도보 5분)

▶자원봉사자 모집

교과수업, 학습지도, 동아리활동 강사, 주말 내일을 준비하는 배움’을 비전으로 2002년 11월 20일 개원했다. 중장기 청소년 쉼터, 검정고시 대안교육(고입, 고졸, 수능반), 대안교육 장기위탁사업 등을 하고 있다. 입소부터 퇴소까지 자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전문화된 상담, 복지, 교육서비스가 자랑이다.

▶후원 모집

일대일 결연후원, 식사후원, 학습 기자재(음 악치료 수업용 기타), 컴퓨터, 생활용품 등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6-901-357720

▶문의: 031-399-7997



칼럼

이옥자 소장(군포시청소년쉼터 하나로 소장)

위기 청소년을 내 품에

하나로에서 하루의 시작은 아이들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된다.

5시 30분, 6시, 6시 10분, 6시 30분 ~ 기상! 끝. 아이들마다 학교가 모두 다르다보니 기상시간도, 학교 가는 시간도 제각각이다. 두 번째는 검정고시 아이들 하나로쉼터에 등교시키기. 세 번째는 8시 50분 꿈학교(대안학교) 등교시간, 집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전화를 걸어 깨우는 일이다.

꿈학교는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위탁되어 이곳에서 학교수업을 받는 또 다른 학교다.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과의 만남은 설레고 가슴 뛰는 일이다.

오후 4시가 지나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가정 이 아닌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맞이한다. 배고파요. 바지가 터졌어요. 운동하다 다쳐졌어요. 침 없이 재잘댄다.

이곳에 모인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환경이 어렵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알콜중독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친구, 부모님이 이혼 후 양육을 포기한 친구, 친아빠에게 매를 맞고 언어폭력에 시달리다가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집에서 나온 친구, 친모가 온라인게임 중독으로 돌봄이 어려운 친구, 대부분이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님의 학대와 폭행을 견디다 못해 뛰쳐나온 경우들이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받

은 충격과 학교 폭력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잠시 결길로 빠진 친구도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인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거리생활을 하면서 건강악화는 물론 절도·폭행·성매매 등 범죄 및 비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부적응으로 이어져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곳 하나로 친구들은 거리생활이 아닌 또 다른 가족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한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다. 이가적이고 부정적인 아이들이 화도

내고 서로 갈등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주고 함께 고민하고 따뜻하게 품어 줄 때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로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토대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또 다른 아픔이 있는 이웃에게 힘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은혜요, 축복이다. 또 다른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꿈을 꾸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케 하시니 오늘도 감사할 따름이다.

“나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시 121: 7-8).

영화,
사랑을 말하다

내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대로

오기환 감독의 '이별계약(A Wedding Invitation)'



이별계약

6월 20일 대개봉!

‘이별계약’은 한국의 오기환 감독이 연출한 ‘선물(2001)’이라는 영화를 리메이크한 중국 영화다. 2013년 4월에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상영돼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영화 ‘선물’은 무명 개그맨 옹기(이정재 분)와 아내 박정연(이영애 분)의 시한부 인생을 소재로 다뤘다. 부부간의 섬세한 감성을 타치했다.

영화 ‘이별계약’은 여주인공의 시한부 인생을 모티브로 다뤘다. 타이완의 펑위옌(彭于晏)과 중국의 바이바이허(白百何)가 남녀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청순한 남녀의 애절한 사연이 진한 감동과 눈물을 안겨준다.

카페에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던 두 남녀(리싱과 차오차오)가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잠시 헤어지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된다. 리싱은 요리사가 되고 차오차오는 디자이너가 된다. 그들은 5년 후에도 싱글일 경우 결혼하자는 이별계약을 맺었다. 사실 차오차오가 위암 판정을 받아 리싱에게 집이 되고 싶지 않아 매달 차게 거절한 것이었다. 5년 후 리싱은 아시아 대표 요리경연대회에 나올 정도로 전문적인 요리사가 되었고, 차오차오는 위암을 극복한다. 차오차오는 리싱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을 흐뭇해하며 청혼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리싱은 변심한다. 다른 여자와 결혼할 날짜를 알려주며 결혼식에 참석해줄 것을 부탁한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은 차오차오는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날아와 리싱의 마음을 돌아키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

차오차오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리싱은 차오차오를 속인 것이라고 변명한다. 차오차오는 화가 났지만 5년간 자신을 기다려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였다. 출세한 리싱은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어 차오차오에게 다시 청혼하지만 차오차오의 위암이 재발한다. 그래서 리싱의 두 번째 청혼도 거절한다. 리싱은 커다란 슬픔과 분노를 경험한다.

인생을 살다보면 때로 거절감에 시달리게 된다. 뜻밖의 임신이나 부모가 원하는 성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좋은 직장과 돈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 중년에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은퇴를 한 후에는 가족에게 외면당한다. 노년에 가난하거나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래 거절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고 평생 도망자로 살았다. 예서는 아람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버지 이삭한테 거절당하자 아람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갔다. 모세는 왕궁에서 민족을 구하려다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의 동족에게 외면당한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숨죽이며 살았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어갈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거절감을 느꼈다.

차오차오와 헤어진 후에 리싱은 우연한 기회에 그녀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을 발견한다. 차오차오

가 지난 5년간 위암 치료를 받았던 것과 재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리싱은 차오차오를 배려해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온갖 정성을 쏟아 그녀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내주었다. 매끼마다 리싱이 만든 새롭고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차오차오는 점차 기력을 회복하였다.

제3차 요리경연대회에서 리싱은 요리를 만들어 심사위원에게 선보이지 않고 갑자기 객석에 있는 차오차오에게 다가간다. 그녀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선사하며 세 번째 청혼을 한 것이다. 차오차오는 위암 말기 시한부 인생이라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용납해주는 리싱의 한없는 사랑에 감동받아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리싱은 차오차오가 자신과 헤어져 있던 5년 동안 자신이 일하는 레스토랑에 들러 자신이 만든 요리를 꼼꼼하게 체크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난날 가슴속에 사무쳤던 거절감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랑은 내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가가는 것이다. 상대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뒷걸음쳐 주는 것, 몸은 함께 있지 못하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함께 있어주는 것, 상대의 약함과 허물을 지적하기 보다는 덮어주는 것, 상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 김선 객원기자

| 기고 | 부부행복퍼즐 맞추기 1



박희철 목사
((사)함께하는 가정운동본부 이사장)

부부는 서로 다른 퍼즐을 맞춰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다. 부부가 행복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배우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부부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이다.

한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도 성격과 기질, 스타일이 모두 다르다. 쌍둥이도 다르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부가 서로 틀리다는 생각하고 대화하면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가 된다. 승자와 패자의 원리다. 반대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대화하면 ‘나도 맞고, 당신도 맞다’가

된다. 서로 다른 것은 축복이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혼하는 부부 열 쌍 중 다섯 쌍은 성격차이로 이혼한다. 크리스천 부부도 예외가 아니다. 성격차이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부부는 서로의 기질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사람의 기질은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교형과 안정형은 사람 중심이고, 주도형과 신중형은 일 중심이다. 모든 유형은 장단점이 있다.

주도형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다. 사교형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 안정형은 타인과 화합, 신중형은 ‘바르게’를 강조한다. 주도형은 에너지가 넘치는 반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사교형은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장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동조하는 변덕스러움이 단점이다. 안정형은 협조적이고 충성적이지만 변화나 갈등을 회피하는 단점이 있다. 신중형은 정리정돈,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친 조심이 단점이다.

내 배우자는 어떤 기질일까. 사교형일까, 주도형일까. 아니면 신중형일까, 신중형일까. 사람 중심일까, 일 중심일까. 이것을 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배우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존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라는 것이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자신의 기질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연약함은 인정해야 한다. 단점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로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다른 것은 축복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자. 부부행복퍼즐을 맞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피플퍼즐 세미나

일시: 7월 14일(월) 오후 1시~6시(1차)

7월 19일(토) 오후 1시~6시(2차)

장소: 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신관 203호

강사: 박희철, 이은영 부부

참가비: 1만원(사전등록 후 입금: 6월 30일
까지), 2만원(현장 등록)

문의: 02-2040-7637, <http://cec.tgu.ac.kr>



온누리 요양센터 8주년 감사예배

“물 붓듯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

아카시아 향이 가득했던 지난 22일, 온누리 요양센터 8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는 기념예배를 드렸다. 조항진 장로의 대표기도, 모세중창단의 특송, 이재환 목사의 메시지 순으로 진행되었다.

‘돌 같은 소망, 물 같은 사랑(롬 5:5)’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목사는 “돌 같은 소망을 갖고, 물 붓듯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자”고 말했다.

2부 행사는 기념식이었다. 박금봉 원장의 인사와 표창 수여, 정호욱 상임이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상임이

사 정호욱 목사는 온누리요양센터가 세워질 당시를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한편, 질 높은 서비스와 탁월한 행정으로 복지기관 최우수등급을 받은 온누리요양센터는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 더 쾌적하고 넓은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 박익새 기자

사랑챔버 창립 15주년 연주회

내일(26일) 저녁 7시30분, 서빙고 본당

사랑챔버 창립 15주년 기념연주회 ‘감사하라 1999’가 내일(26일) 저녁 7시30분 서빙고 본당에서 막이 오른다. 이번 연주회에서 사랑챔버는

1999년 창립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공연은 무료다.

사랑챔버는 지적장애인으로 구성

된 오케스트라다. 1999년 ‘온누리 장애우 음악교실’로 창단했다. 지적 장애인 다섯 명으로 시작한 사랑챔버는 현재 국내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연주하고 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축하합니다

5월 세례자

■서빙고

권효민 850815 김태오 유경은 김하담 120905 김성운 780408 김대훈 최한나 김주성 821229 민채린 130313 김혜영 820203 민경민 장경인 박선미 780829 박주는 120506 박종근 640527 박만순 김용례 박태준 791002 배명은 131128 신혜경 810817 배일호 함효진 심상보 661128 심연재 121028 오영남 651024 심우석 김열애 유호성 770830 엄태민 120625 이상진 551116 엄종호 권경아 이애숙 550716 이승연 120603 조행진 800127 이석원 윤수민 표미연 770429 이시은 131020 > 유아 이재진 석해민 김아련 121201 장민서 131017 김승철 유성진 장연우 김지영 김은유 130530 장예원 130823 김중성 전주옥 장원 김은정 김재이 120924 장하울 130513 김현태 정현주 장원희 박성혜 김주원 130503 정아람 120708

■특별한 초대

정병주 김유진 서동근 691110 정지명 유선주 장택상 690930 홍여정 901230 권호민 850815 김하담 120905 김대훈 최한나 김주성 821229 민채린 130313 김혜영 820203 민경민 장경인 박선미 780829 박주는 120506 박종근 640527 박만순 김용례 박태준 791002 배명은 131128 신혜경 810817 배일호 함효진 심상보 661128 심연재 121028 오영남 651024 심우석 김열애 유호성 770830 엄태민 120625 이상진 551116 엄종호 권경아 이애숙 550716 이승연 120603 조행진 800127 이석원 윤수민 표미연 770429 이시은 131020 > 유아 이재진 석해민 김아련 121201 장민서 131017 김승철 유성진 장연우 김지영 김은유 130530 장예원 130823 김중성 전주옥 장원 김은정 김재이 120924 장하울 130513 김현태 정현주 장원희 박성혜 김주원 130503 정아람 120708

■양재

강준자 490415 김민승 710314 박금식 610120

■수원

조하준 130607 조준형 임영란 최정윤 131209 최성민 박혜진 한누리 131128 한상선 이은숙 김규리 710126 김성련 710122 김연지 900208 김은재 831029 김지연 800422 박영조 870606 정인숙 530116 박하준 131224 박세현 이무영

■인천

정호석 720503 > 입교 김찬석 970423 > 유아 고 유 131210 고근혁 유마리

■강동

주하은 920315 최민식 930912

■수원

유현식 김경아 전형빈 130517 전병준 박명주 주하울 130412 주인성 윤정희 정호석 720503 > 입교 김찬석 970423 > 유아 고 유 131210 고근혁 유마리

■대청

강주용 830331 김리리 780216 박지은 840105 이현승 900205 최성원 781015 > 입교 김이진 810826 이사라 851027

■하남

이지연 921127 정승호 941001 조용기 900921 최사랑 911102

2014 권사, 안수집사 후보 추천 기준

	안수집사	권 사	명예권사
연령	35세 이상 (1979년 2월말일 이전)	50세 이상 (1964년 2월말일 이전)	70세 이상 (1944년 2월말일 이전)
세례일	5년 이상 (2009년 2월말일 이전)	8년 이상 (2006년 2월말일 이전)	5년 이상 (2009년 2월말일 이전)
교회 등록일	5년 이상 (2009년 2월말일 이전)	8년 이상 집사 임직 후 3년 경과한 자 (2006년 2월말일 이전)	3년 이상 (2011년 2월말일 이전)
기본 양육과정	6월 21일까지 QT Basic을 이수한 자		
일대일 양육	6월 7일까지 3명 이상 일대일 양육 완료한 자 (타교인 양육 해당 없음)		
필수 양육과정	6월 21일까지 성경통독,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로마서, 하나님의 성품, Why Mission, 순창학교를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공통	성도에게 모범이 되고 교회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순모임과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2013년 기준 연간 순모임 참석률 50%이상인 자) 심일조를 하고 있는 자 /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6월7일까지 각 캠퍼스 공동체 담당 간사에게 후보추천 준비서류 제출 (후보 추천서, 순 출석 현황 및 양육이력 증명, 주민등록초본, 간증문, 캠퍼스 또는 공동체 운영위원회 회의록)		

순결한 신부의 자리로 나와라!

마리아행전 등록 시작, 6월 8일까지 선착순

여성사역본부가 순결한 신부의 자리로 나올 마리아들을 찾고 있다. 6월 8일까지 2014 마리아행전 참가자를 모집한다. 화비는 2만원(6월 8일 이후 4만원)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은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막 오른다. 주제는 ‘거룩과 순결’이다. 이번 마리아행전에서는 교회, 가정, 정치, 차세대뿐만 아니라 미디어, 성매매, 동성애 등의 사회문제를 기도제목으로 내놓고 부르짖는다. 이재훈 담임목사, 김회권 교수(숭실대 기독교교육과), 김수지 선교사(GMP)에 주부가 선교사, 김윤희 박



사, 에디션 목사, 이태희 변호사 등이 강의한다. 문의: 02-3215-3355

Acts29비전빌리지, 6월 특별집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팀에서 6월 한 달 동안 특별집회를 연다. 주제는 ‘하나 님의 부흥’이다. 이번 집회는 나라와 민족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마련됐다. 디아스포

라, 새터민, 선교사 등을 초청해 알찬 강의도 이어진다.

문의: 이일표 간사
(010-2693-7063)

/ 조은실 기자

날 짜	주 제	강 사
6/3(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피터 양 선교사(코나 열방대학 DTS리더)
6/10(화)	하나님을 위한 실제적인 삶	민경일 집사(북한선교학교팀장)
6/17(화)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고형원 선교사(부흥한국)
6/24(화)	부흥을 위한 믿음과 제자의 삶	김권능 선교사(탈북 사역자)
6/25(수)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 할 것인가?	오 테레사 선교사(중보기도사역)

정경화 자선콘서트 티켓 판매

오늘부터 정경화 자선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오늘과 다음 주일(6월 1일)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로비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주중에는 서빙고 2천선교본부, 양재는 목회지원실에서 판매한다.

정경화 자선콘서트는 오는 6월 13일(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수익금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데 사용된다. 일부는 한국의 어린 음악가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02-2271-2246

박승철 선교사 추모 음악회

박승철 선교사 추모 가족음악회가 오는 6월 1일 오후 5시, Acts29비전빌리지 박모세홀(지하1층)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박승철 선교

사 아내 김혜정 선교사와 자녀(성호, 진원)들이 직접 연주에 참여한다. 또한 손인경(바이올린), 배일환(첼로), 이민정(피아노)이 호흡을 맞춘다.

세례간증

증산도에서 기독교로



/ 오영남 성도(광명공동체)

나는 대학 3학년 때(1987년)부터 증산도 신자였다. 약 26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20여 분 정도 행하는 증산도식 우상숭배 생활을 해왔다. 나로 인해 아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집사람은 천리교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전무했다.

나를 제외한 가족이 2012년부터 미국생활을 하게 되었다. 교회 근처도 가보지 않던 집사람이 미국생활이 힘들 때마다 혼자서 무작정 하나님께 속사정을 얘기하러 교회에 나갔다. 그리고 지난해에 얼마인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아이들도 집사람의 영향으로 모두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은 집사람을 먼저 자녀 삼으셨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뚜렷이 구별되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을 만난 후 긍정적으로 변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증산도 신자였다.

지난해 3월 미국에 갔을 때, 마침 우리 집에서 순심방예배를 드렸다. 나는 우리 집에 온 순원들에게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에게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순예배 다음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긴 했지만 평생 처음으로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증산도의 우상숭배 생활을 이어갔다. 문득 문득 교회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가족들 모두 교회에 다니는데 나도 다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디까지나 막연한 생각이었다. 지난해 10월경, 그날도 아침에 증산도 의식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현듯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회

의가 들었다. 급기야 증산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지 않게 되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연말에 일어났다. 회사 송년회식자리에서 건배사 겸 새해 계획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내입으로 내년부터 기독교로 개종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회식자리에서 개종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추후도 하지 않았었는데, 왜 그날 그 자리에서 개종 얘기를 하게 된 건지... 아마도 가족들의 간곡한 기도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올해 1월 5일 주일날, 처음으로 혼자 교회에 왔다. 이후 나는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큐티와 기도를 하고 있다.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본이념이 되었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 사동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루를 마치는 습관이 생겼다.

불과 5개월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나온 날을 돌아켜보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보잘 것 없는 나를,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러브소나타 참가 후기

9년 만에 다시 찾은
‘내 사랑 일본’

/ 최민정 성도(수원 온누리교회)

직장에 휴가를 내는 것이 여의치 않아 시모노세키 러브소나타에 참가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남편의 권유도 그렇고, 회사업무가 조정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러브소나타에 참가하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나를 시모노세키에 보내시는지는 몰랐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기도하던 중 8년 전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다.

나는 시모노세키에서 1시간 반 떨어진 가시(아마구치현)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NHK뉴스를 보던 중 내가 살던 마을 근처에서 아들이 부모를 살해했다는 사건을 접했다. 그 뉴스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 곳에 살면서도 그 땅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했다. 앞으로는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구하며 중보하겠노라고 기도했었다.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8년 전 내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며, 시모노세키를 위해 중보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나는 러브소나타 시모노세키 B-2팀에 소속되었다. 가스펠 나이트가 열리는 날 일본에 도착했다. 후쿠오카공항을 나오니 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집회 당일에도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이동하던 중, 시야에 관문교가 보였다. 유학시절 수없이 건넌 관문교를 9년 만에 다시 건너니 감회가 새로웠다. 공부를 하기 위해 왔었던 땅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왔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행여나 비가 올까 팀원들 걱정하며 팀원

들 모두가 함께 기도했다. 다행히도 러브소나타 행사 당일에는 맑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다. 러브소나타가 시작되었다. 대홀이 꽉 차서 중홀에 자리를 잡았다. 중홀에도 일본인들이 와 있었다. 그 중에 어린 부부 두 커플과 아기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저들이 메시지도 듣지 못하고 중간에 가버리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이 끝까지 메시지를 듣기를,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감사하게도 그분들은 끝까지 남아 종이비행기도 날리고 화관도 썼다. 그분들이 결신 카드에 어떻게 기입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중보하면 언젠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 날, 우리팀은 ‘우베신쇼 그리스도 교회’를 방문했다. 신학교 동기였던 남편을 여윈 에이코 목사님 홀로 사역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회개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며 불평하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베신쇼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성령님이 일하는 교회, 우베 지역 복음화의 중심이 되고 싶다는 에이코 목사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평택 외국인 근로자 의료선교 후기



/ 이종갑 집사(평택 온누리교회)

“슬라팻 소래?”(인도네시아어)
“셈베세노?”(몽골어)
“쑤쑤쓰다이?”(캄보디아어)

지난 18일 오후, 조용하던 평택 온누리교회가 소란해졌다. 각국 언어로 인사하는 소리다. 온누리의료선교팀이 평택온누리교회를 방문했다. 서빙고의료선교팀은 1년에 두 차례 평택온누리교회를 방문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다.

의료선교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의료팀이 오는 날을 가장 절실히 기다린다. 이날도 평택, 안성, 천안, 오산 등지에서 외국인 50여 명이 찾아왔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다.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주지를 구하는 일, 일자리를 알아보는 일, 물건을 구입하는 일 등 무엇 하나 쉬운 일이 하나 없다. 게다가 몸이라도 아프면 큰일이다. 치료받는 것은 엄두도 못내고 아픈 몸으로 일하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들에게 의료선교팀은 예수님처럼 반가운 존재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온지 3개월째인 다윗 형제

는 치통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한국 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벌여놓은 돈도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던 터였다. 그는 의료선교팀이 해주는 진료를 받고 통증이 완화되었다.

프나이 형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 허리가 아파 고생하고 있었다. 고향에 매달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처지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의료선교팀은 그를 치료해주고 약도 처방해 주었다. 프나이 형제는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치료 받을 방법도 알려주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귀가 아픈 다니엘 형제, 관절이 아픈 에다스시 형제, 스켈링을 해야 했던 쉰나 형제,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게를자매 등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체험했다. 평택 온누리교회 인근에서 캄보디아 근로자들을 섬기고 있는 박요한 목사는 “외국인 형제자매들은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고, 가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 덕분에 친절한 진료를 받았다”고 말

했다. 진심 어린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의료선교팀의 헌신 덕분이다. 의료팀은 마치 훈련된 전투팀 같다. 많은 장비와 진료기구들을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능숙하게 배치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한신해온 경륜을 느낄 수 있다. 쓰러진 링거 거치대를 노끈으로 고정하고 진료한 내과팀, 구슬땀 흘리며 침을 놓은 한방팀, 손놀림이 능숙한 약제팀, 따뜻한 위로와 함께 초음파 결과를 알려주는 검사팀 등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 접수대에서는 간호사 출신 집사님이 15년째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을 대하고 있었다. 올해 77세 된 집사님 한분은 20년째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그분들의 모습이 위대해보였다.

의료선교는 은혜고, 감사고, 사랑이다. 팀을 구성하고, 재능과 물질로 헌신한 분들의 땀과 헌신이 감동적이다.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고,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설교요, 가장 고귀한 사랑이었다. 사랑의 의미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는 의료팀에게 그리고 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가장 좋은 설교, 가장 고귀한 사랑



차세대 김정순 목사의
“Wise Fathering”

연재순서 : 아버지, 그 영적 권위 | 경계선을 통한 훈육 | 말씀을 전수해야 하는 소명 | 행복의 통로, 아버지

아버지, 그 영적 권위

그동안 우리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빠’와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살아왔다. 이러한 구도는 산업화, 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바뀌었다. 성역할이 파괴되었다. 이제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2010년 일본에선 ‘이쿠멘’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쿠멘’이란 유아와 남자의 합성어로서 말 그대로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남성’이라는 뜻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도 ‘좋은 아빠는 육아하는 아빠’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포스터를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안고 살사댄스를 추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 아빠들도 ‘이스라엘 컨택 키즈’라는 무용동아리를 만들었다. 아빠들이 즉흥적으로 춤을 추며 아이들과 몸을 구르며 스킨십을 즐긴다. 1970년부터 스웨덴은 아빠 육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아빠의 육아를 홍보하는 관련제도를 개선해 왔다.

잘 알려진 파워블로그 김동권씨는 아이들과 매일 10분씩 놀아주기를 통해 아이와 친밀감을 쌓는다. 그는 어느 날 아이로부터 “아빠는 항상 일만 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부터 아빠하면 ‘재미, 흥분, 긴장, 쾌감, 즐거움’이 연상되도록 재밌는 활동으로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다. ‘일만 하는 아빠’에서 ‘매일 놀아주는 아빠’로 변신했다.

요즘은 프렌디(친구같은 아빠)라는 단어가 정착되고 있다. 양적인 시간보다, 정기적으로 아빠와 자녀가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중앙아프리카의 ‘아기족’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배리 헐렛(Barry Hewlett)교수는 1970년대에 아기족을 만난 후 최대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한국에서도 ‘수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송 중이다. 엄마와 자녀가 2박3일 동안 떨어져 지내며 다음 아빠랑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아빠의 양육태도와 자녀와의 관계를 본다. 이제 사회는 아빠를 직접 육아현장으로 부르고 있다.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 4:5-6).

성경은 현 세대를 꿰뚫고 있다. 아버지들의 마음은 세상의 성공을 향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성직에 가 있다.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과연 무엇을 위한 바쁨인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가족응집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가족들 모두가 방향하고 있다. 가정의 구심점은 아버지다. 가족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찾아야 한다. 바쁜 일상이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질해갔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마음까지도 훔쳐 갔다.

아버지들은 물질주의, 성공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의 마음을 사야 한다. 아버지가 먼저 자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진정한 사랑을 주면 자녀들은 방황하지 않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

권위주의는 어떤 일을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지해 해결하려는 행동양식이나 사상이다. 자신보다 상위의 권위에 강압적으로 따른다. 반대로 자신보다 하위에 있는 권위에는 오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려는 심리적 태도나 사상이다. 권위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승인으로 성립된다. 권위는 지식과 통찰력, 포용과 조정능력 등에 대한 신뢰와 승인이 있어야 한다. 지위에 따른 역할은 부차적인 것이다.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져야 한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진실 되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적 권위에 순복해 자발적으로 사랑과 존경을 보낸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영적 권위가 살아있는 아버지다.

선교지 이야기 김00 선교사

알쏭달쏭한 인도네시아인의 마음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어느 결혼예식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초대 받은 예식장은 골목이 복잡해 주소만 가지고는 찾기가 여간 쉽지 않았다. 예식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급한 마음에 길가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 운전사에게 길을 물었다. 그는 친절하게 한참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택시요금을 줄 테니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당황해하며 “실은 나도 길을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왜 길을 아는 척 열심히 설명을 했던 것일까?

현지 문화에 무지하면 선교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떤 선교사든지 파송시 때는 포부와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나 막상 선교지에 도착하면 전혀 다른 문화, 세계관, 행동양식에 크게 당황하고 충격을 받는다. 실수를 반복한 선교사는 선교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간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의 섬, 300여 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아름답고 매력적인 섬나라다. 인천공향에서 비행기로 7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생각보다 가까운 나라다. 그러나 그들의 단면만 보고 그들을 모두 이해했다고 큰 소리 쳤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인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개 참 순하고 친절하다. 그러다보니 인도네시아에 잠시 아웃리치를 다녀간 사람들은 그들의 친절하고 성품과 낙성성, 유쾌함에 매료되곤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오랜 기간 머물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허전함과 건조함을 느낄 때가 많다. 오랫동안 만났다고 해서 관계가 특별히 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감정이 솔직해지고, 허물없이 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인들은 관계 안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아니요’라는 말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돌려서 말한다. 이런 특성을 잘 알기 때문인지 인도네시아인과 대화를 나눌 때 ‘Okya, Iya’가 정말 ‘예’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요’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문화인류학자인 김형준 박사는 인도네시아 전체를 주도하는 종족인 ‘자바 종족’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갈등의 부재상태와 외적인 화합을 유지하는 소위 ‘Rukun(화합)’이라 말한다. 자바인은 외적인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품위 있는 행동과 감정표현의 절제를 미덕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내면의 동기나 진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갈등을 피할 수만 있다면 표리부동한 태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 즉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들에게 미덕이 된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인들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운전수가 물건을 훔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인 선교사가 운전수를 공개적으로 야단치며 훈계했다. 그런데 현지인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선교사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란 기억이 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섬겨온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알쏭달쏭 잘 보이지 않는다. 언제쯤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 허물 없이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아야 하는 것일까? 문화, 참 어렵다.



권사 순환칼럼 김영미 권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러브쇼나타가 시작된 지 벌써 20회가 됐다. 나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시역을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부터다.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연주들이 빗발치게 많을 때에도 미국 어느 지역에서 주일을 보낼 경우에는 한인교회에 전화를 했다. 교회에 나를 소개하고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겠다고 말했다. 어느 교회든 환영해주었다.

당시에는 찬양하는 것에 별 뜻을 두지 않고 성악가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꾸준히 찬양봉사를 해왔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깨닫기 전에는 수많은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의지하며 꽤나 오래도록 찬양을 해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왔다. 공포와 우울증이 나를 덮쳤다. 믿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책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고쳐주세요...”

그때 부드럽고 나직한 음성이 들렸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영미야 나를 믿겠니? 너의 고달프고 외로운 그 심정을 나는 안다. 내가 십자가를 갈 때 그 처절함을 아무도 대신 하지 못했다. 날 믿겠니?”

그 위로의 음성은 나를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었다. 급속히 치유

해주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주의 압제하심을 체험한 후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한다.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질그릇과 같은 내게 찬양할 수 있는 특혜를 주신 것에 감격할 뿐이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
아멘 //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독일의 유명한 설교가 헬몬트 트리케어 목사님은 '사랑은 필요 그 자체를 발견하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의 불행을 보도록 해주고, 사랑은 손보다 먼저 눈을 열어 주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의 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웃에 대한 정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들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섬기고, 도와야 될 이웃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면 주님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지'를 되물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원수 같은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먼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증오의 악순환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 민족 간의 관계, 지역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서로 사랑하는 선순환으로 바꾸는 일은 서로 사랑할 때 시작됩니다. 개인의 생각을 뛰어넘고, 민족 간의 이념을 뛰어넘고, 변화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십자가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지 않았고 눈앞에 나타난 강도당한 유대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일 속의 사람은 강도에게 당한 것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베일 속의 사람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워하던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항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영광스런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승천하기까지 평생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 약간의 돈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요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이웃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사랑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없도록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길을 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면 사마리아인입니까.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까.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직업, 힘, 경제력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강도가 나타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앞서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강도를 예방하고, 더이상 강도가 출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받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없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세상은 구호를 외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앞을 내다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데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모세 선교사 열린다 성경

전통적 믿음에 숨겨진 오류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기 위해 갈릴리 호수에 낚시를 던져 잡은 일명 성 베드로 고기는 '무쉬트'라는 생선이다. 그런데 전통적 믿음 속에 숨겨진 치명적 오류가 있다. 호수에 있는 플랑크톤만 먹고 사는 무쉬트는 낚시로 잡하지 않는다. 그물로만 잡히는 생선이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 베드로가 낚시를 던져 잡은 생선은 '바르부스'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무쉬트가 성 베드로 고기라는 후대인들의 전통적인 믿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낚시로 잡지 않는 무쉬트를 베드로의 낚시 바늘에 걸리도록 기적을 베푸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수롭지 않은 일에 기적을 남발하셨을 것 같지는 않다.

베드로 고기와 함께 대표적인 갈릴리 호수의 관광 상품이 있는데, 그것은 오병이어 모자이크가 들어간 접시다. 비잔틴 시대에 발견된 오병이어 모자이크 바닥 위에 세워진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지금도 자신의 삶 속에 오병이어 기적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성도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병이어 모자이크 속에도 숨겨진 오류가 있다.

오병이어 모자이크를 보면 바구니에 들어 있는 빵과 함께 양쪽에 새겨진 두 마리의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데 그 물고기는 갈릴리 호수에서는 결코 잡힐 수 없는 생선이다. 모자이크 속의 생선은 모두 두 개의 등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잡히는 모든 생선은 등지느러미가 한 개뿐이기 때문이다.



다. 아마도 오병이어 모자이크를 새겨 넣은 비잔틴 시대의 무명의 예술가는 갈릴리 호수에 대한 배경적 지식이 없었던 듯하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힌 무쉬트는 호수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즉석 배달되어 지글거리는 후라이팬 기름 속으로 옮겨진다. 지금은 넘쳐나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저수지에서 양식한 무쉬트를 레스토랑에 공급한다.

탈무드에 '급하고 빠른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 가운데 'as from the sea into the frying pan'이라는 말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성 베드로 고기의 운명에서 나왔다 고한다.

성 베드로 고기의 정체가 '무쉬트'이든 '바르부스'이든 갈릴리 호수가에 즐비한 레스토랑에서 아무런 양념 없이 허접하게 튀긴 성 베드로 고기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면서 2000년 전 갈릴리 호수가를 거니던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분명 독특하고 인상적인 체험이 될 것이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이스라엘: 7월 29일-8월 6일(8박9일) 터키-그리스: 8월 5일-12일(7박8일)
문의: 010-4902-1022

2014년 아이스쿨 강좌안내

<서빙고>

Basic QT 31기 화요오후반

학습기간: 6월 3일~6월 24일
일정: 매주 화 오후 3시~5시
장소: 서빙고 선교관 301호
문의: 010-3199-2769

미용스쿨 12기

학습기간: 6월 4일~7월 30일
일정: 매주 수 오전 10시~12시
장소: 서빙고 비전홀
문의: 010-6582-2729

발반사요법스쿨 13기

학습기간: 6월 4일~7월 30일
일정: 매주 수 오전 10시~12시
장소: 서빙고 B102호
문의: 010-5252-1531

성령수련회 54기

학습기간: 6월 21일~6월 22일
일정: 오후 1시30분
장소: 다윗동산
문의: 011-1720-5221

<수원>

Basic QT-수원 18기

학습기간: 6월 8일~6월 29일
일정: 매주 주일 오후 4시~6시
장소: 수원 비전홀
문의: 010-9567-6627

<평택>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 평택2기

학습기간: 6월 1일~7월 13일
일정: 매주 주일 오후 4시~7시
장소: 평택 온누리
문의: 010-3311-2233

